

밀폐된 내부를 뚫고



- 1950년 3월 생
-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 박사
-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 (前)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 (前)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 (前) 국가정보원 원장
- (前) 제58대 법무부 장관
- (現)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김 성 호

I. 서 언

누구에게나 수험기의 시련은 있다. '나는 틀림없다'는 오만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어느날 갑자기 司試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미 自由人이 아니다. 그녀가 가버린 텅빈 허공, 그 속에 아직도 보고 있는 두 개씩의 눈들이 자신을 왜소하게 만들고 정신과 육체는 부단히 도전을 받아 마침내는 병들어 찌들고 말건만 불은 다 타도록 꺼지지 않는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런 일들을 감상적으로 나열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내 나름대로 실천하고 느낀 수험작전의 이모저모를 밝혀 수험생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

II. 정신무장

1. 司試의 실체

동기야 어떻든 이미 수험대열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부터 司試는 하나의 투쟁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자라면 어느 정도 외부적 여건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정신무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하물며 그 외부적 여건이 대 동소이하다면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大學生活을 만끽하노라고 한없이 나태해 있던 나는 졸업식전에 앞에 나가는 영광

과 1차 낙방의 수치를 동시에 맞보면서 마침내 결심하였다. ‘나는 意志로서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고비는 있었다. 병과 낙방, 그리고 타성,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절실한 思考가 내게 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였다. 이때는 벌써 判·檢事라는 직업은 멀리있고 오직 밀폐된 내부를 뚫고 나가려는 맹목적 意志만이 용솨음칠 뿐이었다.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다. 그리고 ‘하야야 하므로 할 수 있다.’

2. 환경의 극복

수험준비는 일종의 비상사태이므로 환경도 일상시와는 다르게 꾸미게 된다. 즉 환경에 자기를 적응시키기 보다는 환경이 자기에게 적합하도록 하야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험생들의 환경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하고 그리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크고 작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주기 마련이다. 예컨대 경제적 빈곤, 여성과의 갈등, 병역문제, 공부장소, 가족상황 심지어 친구까지도 수험준비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

나에게도 환경은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었다. 불연속적이긴 하지만 大學時節부터 아르바이트를 해 왔으며 졸업을 6개월 앞두고부터는 집으로부터의 원조가 전면 중단되었었다. 게다가 女子는 끝없이 나를 방황하게 하였고 군입영은 1974년 2월 28일을 終期로 잠깐 보류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그러다가 은연중에 나는 이러한 각종 환경의 도전에서 도망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무관심이었다. 司試, 이 한 목표를 위해서 다른 것은 모두 별것 아닌 시시결령한 짓거리로 규정지어 버린 것이다. 이때부터 나의 모든 생활은 수험준비에 흡수되어 단순화의 과정을 걷기 시작하였다. 노력과 쟁취의 대상은 오직 司試뿐, 그 외 모든 것은 내가 알바 아니며 運命 또는 神의 할 일쯤으로 넘겨 주었다.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도 없이 쏟아버린’ 것이다. ‘자기 자신을 정리하지 않은 행동은 임자없이 멋대로 뛰는 말이나 다름없다. 목표가 없는 행동은 하나의 방종이다.’ 그러나 人間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동물, 벗은 제2의 자기, 가꿈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추억의 傷痕. 그리하여 생활의 단순화작전은 간혹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곤 하였는데, 만추의 어느 하루에 나는 마침내 안정을 찾았다. 16회 司試를 서너달 남기고 나의 수험생활에 전면적으로 봉사해줄 반려자를 만난 것이었다. 그때 나는 기祈求하였다. ‘함동하여 유익하게 되기를’

3. 건강과 정신무장

자신도 모르게 수험대열에 깊숙히 연루되었을 때 내 몸은 마치 만병의 전시장 같았다. 대학시절의 무절제한 생활에 이은 수험공부의 중압때문이었다. 그 때는 아무리 위력없는 세균에 대해서도 저항할 자신을 잃고 있었다. 이러한 자신의 상실은 司試에 까지 연결되어 마침내 15회 司試는 히죽히죽 웃으며 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으며 결과는 뻔한 것,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분노와 질책, 하긴 하루에 40개 이상이 알약

을 삼켜야 하는 괴로움, 2개월씩이나 가던 무서운 기침, 코를 찡찡거리며 병원을 들락거리던 기억, 소화불량으로 음식을 식도 이전에서 완전히 소화시켜야 했던 일, 그 정도면 자기변명이 될 것도 같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생각은 16회 司試때만은 지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때도 비슷한 영양상태였고 더욱이 시험을 10일 정도 남기고부터는 뒹뒹거리던 쿨에서 액체가 흐르기 시작하여 시험장에서는 보온상 빵모자를 눌러쓰고 매일 병원에서 닭아내어야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마지막이었다. 영양주수도 맞고 버텨야 했다. 이번에도 합격하지 못하고 이대로 입영을 해버린다면 나는 영영 육구불만에서 헤어날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結論은 ‘神은 人間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 즉 어떠한 질병도 정신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시련에 봉착하지 않게 대비하는 편이 훨씬 좋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니까.

III. 독 서

독서는 수험생활의 핵심이지만 그 방법은 다분히 주관적이므로 아래의 것은 순전히 내 개인의 경험이고 의견일 것이다.

1. 책의 선택

책은 내용면에서 학설이 잘 소개되고 비교적 보편적인 것, 형식면에서 체계가 잘 짜여진 것이 좋았다. 독특하거나 극단적인 책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것 같았고, 산만한 책은 잘 이해가 되질 않고 골격을 정리하는 데도 필요이상의 노력을 소비할 것 같았다. 대체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책을 고르되, 소설처럼 길다랗게 쓰여진 문장, 한 단원의 처음이나 끝부분에 빨간 줄을 그을 수 없는 책은 도대체가 싫었다. 다만 기본서로서 선택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꾸지 않았다. 내가 선택했던 기본서는 다음과 같다.

- <국사> 변태섭 요론, 남도영 정통
- <헌법> 김철수 헌법학개론
- <민법> 광윤직 민법강의
- <형법> 황산덕 총론, 유기천 각론
- <행정법> 김도창 행정법론
- <상법> 서돈각 상법강의 및 예해(例解)
- <민소> 방순원 민사소송법
- <형소> 김기두 신형사소송법

참고서로는 이외 각종 교과서와 문제집, 잡지 등이 응용되었는데 특히 ‘考試界’는 문제정리에 도움이 컸다.

2. 독서법

독서방법이라고 하면 정독, 다독, 속독 등 많이 있지만 모두가 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첫 회독이 무척 어려웠는데, 몇 번의 시도가 좌절되자 마침내 소설 읽듯이 줄줄 훑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부터 정독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이러한 방법도 효과적일 것 같다.

효과적 독서법에 대해서는 심리학상으로 많은 연구가 있는 듯하나 내게 있어서 가장 어필하였던 것은 高校時節 은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소위 ‘Survey Q3R Method in Reading Books’라는 방법이었는데 이를 간단히 술(述)하면 다음과 같다.

<Survey Q3R Method in Reading Books>

(가) Survey

우선 개관하여 대강의 윤곽을 파악한다. 대개 이런 경우에 ‘책을 X자로 본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머리도 사진을 찍는 기분으로 후딱 보아 넘긴다. 이 훈련이 잘 되면 나뭇가지만 보고 숲을 모르는 뽕을 어느 정도 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끔 십겹지만 목차만 보고 몇 시간씩 앉아 있기도 하였다.

(나) Question

표제에 자기 나름대로의 의문을 가져보고 해답을 해 본다. 역시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무의식적으로 순식간에 그런 준비과정을 거칠 수 있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데, 또는 기억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다) Read

전단계에서의 의문을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다. 지나친 선입감은 금물, 비록 전단계에서의 자기의 해답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개의하지 말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단계에서 좌절당하는 것 같았다. 내 경우도 예를 들면 ‘몇 시간 앉아 있었는데도 뭘 보았는지 알 수가 없던 때가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독방과 밤공부를 즐겼다. 생활을 보다 단순화시켜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는 마치 땅굴을 파는 두더지처럼 혼자서 무언가 열심히 찾고 보고 쓰고 있었다. 이때는 경쟁자도 없었고 별로 재미있는 일도 없었으므로 그저 계획대로 천천히 그리고 착실히 의문을 풀고 해답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는 일종의 무의식상태였다. 특히 시험을 앞둔 2개월 정도는 마치 자기최면에 걸려 있었던 것 같다. 만약 인간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과 기억

력을 한계에까지 끌어 올릴 수만 있다면..... (각설)

이것이 바로 하루를 25시간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라) Recite

암송의 단계로서 결과적인 기억증진법이라고 생각한다. 줄을 그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눈을 책에서 떼고 머리와 입 또는 펜을 첨가하여 소리내어 외어보는 것이다. 때로는 기억으로 바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처럼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다음의 복습단계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에 공통된 현상일 것이라면서 자위하였다.

(마) Review

망각은 인간의 상사(常事), 어쩔 수 없는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장기적복습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누군가에 의하여 48시간 후면 기억의 거의 전부를 소실하고 만다고 하지만 사실 司試에 있어서는 도서의 절대량이 너무 많아 기억 재생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험생은 독서의 절대시간과 회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 경우는 이런 것에 전혀 신경 쓸 필요없이 착실하고 꾸준한 독서태도만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과연 몇 회독이나 하였는지 잘 알 수가 없다.

능률적인 복습을 위하여 진도가 나간 곳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적도 있었으나 갈수록 누적적인 독서의 부담으로 이러한 방법은 거의 실패하고 말았다. 다만 요점 중심의 서브노트를 작성하여 한번씩 훑어보는 것은 꽤 효과적이었다. 그리하여 나의 수험생활 거의 전부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서브노트를 작성, 개작하는 일에 바쳐졌다. 결국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려면 무작정 회독수만 늘인다는 건 다소 요령부득인 것 같았고 더욱이 나의 약한 신체로서는 무리한 일이었다.

3. 장소와 시간

이는 전기(前記)하였듯이 장소는 밀폐된 골방, 시간은 낮 11시부터 새벽 4시경까지로 하였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은 신경쓸 일이 많이 생기고, 아침시간은 졸음만 와서 어정버정 흘러가 버리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한낮에 꿈에서 깨어나면 정숙이 감도는 속에 밥상만이 텅그러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고독한 야행성이었다.

IV. 수험비상

1. 분석과 작전

시험의 실패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합격을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를 엄숙히 인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검토하고 작전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12회 이전에는 다른 일에 대한 몰두, 예컨대 人間 · 社會 · 神 등에 대한 부단한

같듯이 司試를 외면하게 만들었고, 13회가 그 절정- S의 OO미수사건으로 1차에서 낙방, 14회는 오만이 나를 울렸다. 다시 1차에서 어이없이 낙방, 원인은 영어, 친족 상속법의 부실이 80점을 상회한 살인적 커트라인을 이겨내지 못한 모양이었다. 15 회에는 1차에 약하다는 누명을 벗기 위하여 약점과목에 주력 겨우 1차에는 붙었으나 발표 전 1차에 대한 불안, 여건의 불리, 초여름 성동원두를 뒤흔든 백구의 향연이 나의 광적인 스포츠열을 고조시켰고 무엇보다도 정신력의 解弛, 집념의 부족이 2차 응시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낙방후 소송법에 약하다는 걸 깨달았으며, '사건의 동일성'을 '범죄사실의 동일성'으로 착각한 형소가 55.66, '不要證事實'에서 刑訴와 혼동한 民訴가 48.33으로 합격자의 대열에서 아슬아슬하게 물러나고 말았다.

16회 내 최후의 司試에는 1974년 1월 1일부터 동년 2월 28일까지 소위 새해 작전이 설정되고 비상이 걸렸다. 이 때는 한가히 영양보충(?)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운명의 나흘에 대비한 새로운 작전이 필요한 것 같았으므로 이를 겨냥하는 계획적인 칼렌다가 만들어 졌고, 이때부터 새로운 투지가 불붙기 시작했다.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2. 서브노트의 활용

시험 특히 司試에 있어서는 당일치기가 필수불가결이라고 생각했다. 기억은 가까울수록 선명하며,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였더라도 막상 수험장 글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긴다면 만수휴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하루 저녁에 몇 권의 교과서와 문제집을 도저히 읽어 넘길 수 없었고 설명 읽어넘긴다손 치더라도 것처럼 무리한 속도에서 어찌 간결명료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꼭 회의적이었으므로 아예 미리 Title과 요점 중심의 서브노트를 작성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서브노트는 각종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작성하였으되 혹시나 하는 노파심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총망라하여 문제당 한 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하였고, Title을 3~5개를 원칙으로 2~7개를 예외로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시험 4일전까지(계획은 1월 1일부터 1과목당 3~5일씩 보아나가 12일 전부터는 1과목당 1일, 4일전부터는 2과목당 1일로 되어 있었다) 서브노트만 보고도 요점을 중심으로 문제의 내용을 풀어 쓸 수 있는 연습을 거듭하고 있었다.

3. 수험초비상

시험 전 나흘은 시험시간표의 역으로 당일치기 총연습을 하였다. 말하자면 수험초비상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이 나흘에 나는 큰 곤욕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전 세든 집이 팔려 2월 20일에 이사를 하여야 하였는데, 이사는 여자에게 맡겨두고 그 날 하루를 우왕좌왕하다가 학교도서관 4층 난롯가에 자리를 잡은 것이 잘못되어 귀

가 다시 터져버렸으며 처음 와 보는 새집은 단칸방에다 소란스러워 부랴부랴 하숙을 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하숙 첫날은 선혈이 코에서 쏟아져 당황하였다. 시험장 4일 중 마지막 이틀이 약간 불안스러워지고 이제는 결국 처음 이틀에서 끝장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예상대로 처음 이틀은 평균 64점에 육박하는 점수가 나왔으나 나중 이틀은 평균 56점을 겨우 상회하는 저조한 점수가 나왔으니 나의 초비상책은 반반 성공한 셈이다.

4. 결전장

수험장은自己와의 투쟁의 마지막 현장이다. 그저 겸손하고 성실할 수 밖에 없는人間, 나약할 수도 강인할 수도 있는 자기만이 무서울 뿐이다.

팅빈 공백의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신에겐지 스스에겐지 기도를 드린다. 절대로 중도포기하지말라던 L형의 당부가 떠오른다. 마침내 벨이 울리고 눈을 번쩍뜨면 문제의 두루마리가 흘러 내린다. 정리를 한다. 그리고 쓴다. 쓴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므로 최대의 성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정리하여 간결한 문구로 깨끗이 알아보기 쉽게 쓴다. 그것이 최선이다. 적극적인 실수도, 중언부언도, 흘러 쓴 글씨도 금물이다. 지나간 것을 후련한 마음으로 잊어버린다. 수험장을 나설 때는 장갑이 없어진 줄도 모른다. 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언변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통감한다.

그 며칠 후 채 회복되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나는 훈련소로 갔다.

V. 결 어

면접이 있던 날 오른 쪽 눈 위에 붕대를 붙이고 머리를 뺄뺄 깎은 사람이 있었다. 한발을 절면서 뒤뚱뒤뚱 걸어온 것이다. 이러한 시련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는 수험생들의 노고와 정열에 격려를 보낸다. '씨를 뿌린자는 반드시 거두리라'는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모두 좌절감을 씻고 오투기처럼 오뚝오뚝 서야했다. '내가 약하면 운명은 그 만큼 강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은사님, 의사선생님, 친구, 가족친지들에게 감사사를 드리며 수족처럼 충실하였고 끝내는 울어버린 나의 아내에게 이 영광을 바친다.

그리고 아아, 눈이 부시게 푸르런 날이여, 그리운 날이여!

1974년. 가을에